

작품 내용

제 목	AI가 써준 글의 비밀
내 용	“여러분 저작권 글짓기 제출해야 하는 날이 겨우 3일밖에 안 남았어요. 다들 빨리 써서 선생님에게 제출하세요.” “네~!” ‘저작권 글짓기 하나도 못 했는데..어떡하지...’ 나는 지금 저작권 글짓기 제출 날이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 써보려고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친구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나연아~ 너 저작권 글짓기 다 했어?” “응! 근데 그건 왜? 너 설마 하나도 못 쓴건 아니지?” “와..너 어떻게 알았어? 진짜로 나 어떡하지..?” “야, 그냥 AI한테 시켜. 요즘엔 AI가 사람보다 잘 쓰더라니까?” “괜찮을 거 같긴 한데.. 그랬다가 선생님한테 걸리면 어떡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선생님이 눈치 못채시지 않을까?” “음.. 그러면 내 말투로 조금 수정해서 쓰면 되겠지?” “그러면 절대 안들키겠네!” “고마워! 나 쓰러간다!” 그날 밤에 나는 바로 AI에게 저작권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좋은 글을 써 달라고 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입이 떡 벌어질만큼 완벽한 글을 써 줬다. 다음 날, 제출하기 전 친구들이 글짓기 내용을 열심히 수정할 때, 나는 작년 수상작들을 읽어보면서 여유를 부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익숙한 제목의 글이 보였다. 글을 읽어보니 AI가 나에게 써준 글과 완벽히 일치했다. 그 순간 조금 멈칫했지만 글을 다시 쓸 시간이 없었기에 제목만 대충 바꿔서 선생님께 제출했다. 나의 글을 읽은 선생님과 친구들은 모두 나의 글을 보고 정말 완벽하다고, 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줬다. 솔직히 AI가 쓴 글을 베껴 썼다는것과 AI가 작년 수상작을 그대로 써준것이 신경 쓰였지만 상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기뻐했다. 그때 나연이가 나에게 와서 말했다. “거봐 내가 AI한테 시키면 된다고 했지?” “나연아 근데 나 어떡해? 내가 아까 확인 해 보니까 내 AI가 써준 글이 작년 수상작이랑 똑같아..” “야 그냥 비슷한거겠지. 그리고 똑같아도 아무도 몰라. 봐봐 지금 모두 너 글 잘 썼다고 해주잖아. 그냥 너랑 나만 비밀 지키면 되는 거야.” “그렇겠지..?” 솔직히 기쁜 마음보다는 불안감이 더 컸지만 나연이 말을 믿어보기로 했다.

며칠 후 저작권 글짓기 단체 출품 다음 날 선생님은 나를 따로 부르셨다. 갑자기 따로 부르셔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불러가며 속으로 오만가지 생각을 다 했다. ‘아! 글쓰기!’

“유나야 혹시 이 글 정말 너가 쓴거 맞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네, 맞는데요.”

“AI를 쓰거나 다른 수상작을 베낀 거는 아니지?”

“네, 정말 제가 썼어요.”

“유나야 솔직하게 말해줘. 너가 선생님한테 제출한 작품이 작년 수상작이랑 완벽히 일치해서 이대로는 대회 규정 위반이라 제출을 못한대.”

“왜 규정 위반이에요?”

“유나야, 저작권 글짓기에 나가는데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면 어떡하니? 물론 저작권 글짓기가 아니어도 저작권 침해는 하면 안되지만.”

“저작권이 정확히 뭔데요?”

“하...너가 정말로 아무 조사도 안 하고 글을 베껴서 쓴게 맞는거 같구나. 유나야 저작권은 말이야,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야. 글, 노래, 그림, 사진, 영상, 소프트웨어 등 창작된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 배포, 공연, 전송, 전시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지.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와 문화의 발전에 좋은 영향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존재하는거야. 그런데 지금 너는 작년 수상작을 만든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거야.”

“아.. 그렇구나. 그치만 저는 수상작을 베껴서 쓴게 아닌걸요?”

“그러면?”

“사실 AI한테 시켰어요.”

“음... 아무래도 AI가 너에게 작년 수상작을 그대로 알려준 것 같구나. AI를 사용해서 글을 쓰려고 한것도 잘못된 거니까 유나 너는 이번 대회에 못 나갈 것 같네.”

“네...”

“다음부터는 AI를 쓰거나 다른 사람의 글을 베껴서 글을 쓰면 안돼. 2학기 때 또 다른 글짓기 대회 나갈 거니까 그때는 너 스스로의 힘으로 써봐. 알겠지?”

“네..”

그렇게 내 근거없이 아무였던 잘못된 시도는 다행히도 실패로 돌아갔고 이번 일을 계기로 쉬운 방법대신 어렵지만 단단한 방법을 선택해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름 방학 동안 독서록을 쓰면서 읽고 쓰는 연습을 했고 나만의 글쓰기 방식또한 조금씩 나아져만 갔다.

그렇게 2학기가 되었다. 반 친구들과 함께 나간 다른 글짓기 대회에서는 그저 나의 힘으로만 글을 써서 제출했다. 1학기 때 어둠의 방법으로 제작되었던 AI표 글보다는 다소 영성하긴 했다. 그렇지만 이번 글은 내가 직접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쓴 것이다. 결과는 기대하지 않았다. 분명 인간의 글보다는 수 많은 자료를 학습한 AI가 소름끼치도록 완벽한 글을 쓸 것임은

불보듯 뻔했으니 말이다.

그렇게 글을 제출하고 잊고 살던 어느날 초등학교 졸업을 바로 코앞에 둔 찬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때 나는 예상 밖의 소식을 선생님께서 전해듣게 되었다. 바로 내가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물론 전국 단위 상은 아니고 지역단위 상이라 미디어나 그 어디에도 내 이름 한 줄 나올 일이 없는 작은 상이었다. 따라서 상금도 없고 그냥 상장과 작은 기념품만 수여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뭔가 내 힘으로만 글을 써서 상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AI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은 어설프지만 인간적인 내 글을 누군가가 높게 봐주었다는 사실에 그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니까.

그 일이 있는 후로, 나는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고있다. 더불어 AI나 다른 것들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을 그리고 있다. 물론 AI를 완전히 사용 안 하는 것은 아니다.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검사하거나, 미처 내가 놓친 부분들을 찾아주는 데에는 아주 좋은 도구이니까. 다만, 앞으론 과거의 나처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AI에게만 매달리는 바보같은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